

생기롤로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팀 소식지

• 발행인 : 박명옥 • 편집인 : 호스피스완화의료팀 • 전남 순천시 순광로 221 • Tel: 061)907-7530/7560 • Fax: 061)907-7562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안에 머물러라 (요한 15,9)

가장 아름다운 사람

살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사랑을 다 주고도 더 주지 못해서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살면서 가장 축복받는 사람은
베품을 미덕으로 여기며
그로인해 손해가 올지라도 기꺼히 감수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살면서 가장 존경 받는 사람은
남에게 덕을 베풀고,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살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사람은
일에 대한 보상과 이득을 따지지 않는 사고를 가진 사람입니다.

살면서 가장 용기있는 사람은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남의 잘못은 용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살면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살면서 가장 가슴이 따뜻하고 예쁜 사람은
차 한잔을 마시면서도 감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살면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세상을 욕심없이 바라보는 마음의 눈과,
맑은 샘물처럼 깨끗하고 아랫목처럼 따뜻한 가슴을 지닌 사람입니다.

- 좋은 글 중에서 -



함께하는 시간의 의미 : 호스피스 간호가 가르쳐준 것들

제가 호스피스에 있으면서 느낀 것은 함께하는 시간이 주는 소중함입니다.

저는 신규 간호사로 첫발을 내딛 이후 지금까지 호스피스 병동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고 느끼지만 환자, 가족들과 함께 한 경험으로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호스피스 간호는 단기적으로 적극적인 통증 조절, 장기적으로는 편안한 임종을 목표로 합니다. 그것은 약물치료나 신체적 케어 이상의 것에 중점을 둡니다.

어떤 환자는 가족과 함께 웃음을 나누길 원하고, 또 어떤 환자는 조용히 음악을 들으며 평화를 찾길 바랍니다. 환자와 가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공감하는 과정으로부터 간호가 시작되며, 그들에게 편한 방법을 찾도록 돕는 것이 제가 느낀 호스피스 간호사로서의 역할입니다.

기억에 남는 환자분은 항상 작은 사진첩을 쥐고 계셨습니다. 그 속에는 가족들과 함께한 소중한 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환자분은 그 사진첩을 자주 바라보셨고, 가족들이 방문할 때마다 사진 속 추억을 조용히 나누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어느 날, 가족들이 환자 곁에서 사진을 보며 웃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가까이서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마치 병실이 아닌 따뜻한 거실 같은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환자가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과의 연결을 통해 위로를 얻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내가 해야 할 돌봄은, 단순히 신체적 케어에 머무는 것이 아닌 환자가 자신의 삶과 관계를 되돌아보며 평화롭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는 특별한 역할로서, 환자의 삶의 이야기를 존중하고 그들이 남긴 흔적을 가족에게 이어주는 과정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느낍니다.

호스피스에서의 시간은 우리의 시선을 죽음에서 삶으로 옮겨, 작은 순간들이 만들어내는 큰 의미를 통해 삶의 소중함을 느끼고,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돌볼 수 있는지에 대해 깨닫게 합니다.

앞으로도 환자와 가족의 삶에 따뜻함을 더하며 호스피스 돌봄의 가치와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간호사 박세리

▶ 24년 5월 10일 자원봉사자 자연피정

호스피스병동 봉사하는 날에는 환자와 보호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하느님을 체험하고 오늘은 자연안에서 하느님과의 만남을 갖는 자연피정 날이다.

날씨는 작년과 비슷한 패턴으로 어제까지 비가 내려 더 맑고 청아한 날씨로 축복 받은 느낌을 가지고 함양 상림공원을 향해 출발했다.

상림공원은 신라 진성여왕 10년(894년) 최치원이 홍수를 막기 위해 조성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인공림이라고 한다. 세월이 지난 현재는 인공적인 것은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숲처럼 느껴진다. 우리의 생활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면 자연스럽게 나의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시간을 가졌다.

가지각색의 초록으로 뒤덮인 나무들로 힐링하고 경남 고성 상족암으로 이동했다.



바닷가 절벽과 바위에 어느 조각가도 만들 수 없는 조각품들이 산재해 있는 상족암에서의 시간도 우리에게 한없이 주어지는 은총에 은총을 더한 시간이었다.

자연안에서 서로 친교를 나누고 식사하면서도 새롭게 시작한 신입 봉사자들과의 어색함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요일과 관계없이 어느때라도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져서 더욱 좋은 감사의 시간이었다.



24년 6월 3일

통증캠페인

말기암환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불편하고 힘든 신체적 증상이 통증이다. 통증만 잘 관리해도 말기암 환자 삶의 질은 눈에 보이게 향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편견 때문에 통증이 잘 조절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6월 3일 본관 로비, 진료실복도, 입원실에 들어가 통증캠페인을 실시하였다.

O,X 퀴즈를 풀어봄으로써 암성 통증에 대한 편견과 진실에 대한 이해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며 홍보물품을 챙겨가시기도 했다.

더불어 호스피스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질문과 퀴즈를 통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적극적인 참여가 있는 캠페인이었다.



➡ 24년 8월 28일~29일 일반인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

2024년 일반인을 위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교육은 호스피스의 올바른 인식의 정립에 주안점을 두고 시행하였다. 호스피스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죽으러 가는 곳” 라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환자들이 호스피스를 두려워하고 너무 늦게 서비스를 받게 되어 삶의 질을 떨어지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을 실무에서 많이 보았기에 호스피스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더 피력하고 싶은 의향을 가지고 교육준비를 하였다.

교육이 한시간 한시간 끝날때마다 하루하루의 삶이 소중하다는 감사의 인사말, 마음의 동요가 크게 일어나 울컥하며 느낌을 이야기 하시는 분도 계셨다.

교육생은 43명의 신청자로 20대~8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었지만 한배를 타고 같은 곳을 향해 가는 마음으로, 교육을 통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며 잘 죽는 것은 잘 사는 것이라는 해답을 가지고 생활하고자하는 결심에 대한 나눔, 교육을 삶의 자양분으로 삼아 조금 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거라는 자신감도 생겼다는 소감도 이야기 해주셨다. 죽음이 삶이니 충실히 즐겁게 사시겠다고 하시며 감사의 인사를 하는 70대의 교육생도 계셨다.

이런 느낀점이 있어서 그럴까 올해에는 호스피스병동에서 자원봉사를 하시겠다고 신청서를 많이 쓰셨다.

이론 교육을 마치고 둘째 날 오후에는 장소를 이동해서 본원 장례식장에서 유서 쓰기와 관 체험을 했다.

관속에 들어가 여러 생각들이 스치고 지나가 솟구치는 눈물을 주체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분도 있었다. 소원했던 딸과 용서를 청하고 화해를 했다는 나눔에 누구라 할 것 없이 축하의 박수를 보냈다.

교육을 통해서 느낀것과 내가 노력해야 할 것에 대한 결심을 세우기도 하고, 힘들 때는 마음에 새긴 교육 내용을 꺼내 다시 마음을 다지는 계기를 만들기로 하며 우리 자신들을 위해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마무리 할 수 있었다.



➡ 24년 9월 5일

한가위 맞이 송편빚기 이벤트



추석맞이 송편빚기

명절준비를 위한 송편 빚기 이벤트를 시행했다. 더위가 사알짝 지나간 듯한 선선한 날씨로 한가위 추석이 다가오는 느낌이다.

여느 때와는 달리 2주전에 추석 한가위를 느껴보는 시간이다.송편의 색을 삼색으로 반죽하고 빚어서 찌 내니 서로의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색이 한복 색인 듯 파스텔톤으로 예쁘게 연출되어 서로를 만족시키는 시간이었다. 빚으면서 송편인가 만두인가 하며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고 정성을 들였다. 송편과 다과, 신선한 대하까지 환자와 가족들에게 나누면서 풍성함을 느꼈다.



2024년 호스피스완화의료 바로알기 캠페인



전년에 이어서 10월 18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플라자브릿지(구름다리)를 오가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캠페인으로 안정감 있고 학생부터 청장년, 노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광주 전남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 6개 기관 실무자들과 광주 3개구보건소 직원들이 호스피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한 캠페인을 시행했다. 호스피스를 알고자 호스피스완화의료 바로알기 퀴즈, 완화의료 상담 데스크 운영, 혈압, 혈당측정, 리플릿

배부, 즉석 케리커처 그려주기, 즉석 뽑기를 통하여 선물 뽑기에 대해서 반응이 좋았으며 뽑은 선물을 들고 기쁜 표정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벼워 보였다. 가장 많은 4등 선물은 치약짜개와 여행용 치약칫솔 세트로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스티커 부착으로 홍보효과가 있으리라 기대된다.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해 바로 알고 선물도 받고 서로 기쁨의 시간을 보내는 하루였다.



한국 가톨릭 호스피스협회 우수자원봉사자상 수여

호스피스병동에서 1000시간이상 성실하게 봉사한 봉사자로 인정을 받아 한국가톨릭 호스피스 우수봉사상을 장정임 자매님이 수여했다.



완화의료 도우미제도를 2016년 11월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1일 본인부담 간병비 5천원)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이용방법



문의: 입원형 호스피스 061) 907-7560, 7530

병동 미사 및 사별가족 모임 안내

호스피스병동에서는 매달 두 번째 목요일 오후 2시에 입원환우와 가족, 세상을 떠난 환우와 사별가족을 위한 미사를 별관 5층 호스피스병동 기도실에서 봉헌합니다. 미사후 사별가족들과의 만남을 통해 상실의 슬픔을 서로 나누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대세자 2024년



- 2024 7월 김요셉, 이요셉, 오마리아, 김바오로
- 8월 배요한크리스토토모
- 10월 김사도요한, 허사도요한, 윤요셉
- 11월 조요셉

후원회 소식

후원자

김경화, 김귀순, 김명자, 김민세, 김민희, 김소월, 김은미, 김은희, 김을순, 김인아, 김철영, 김현자, 김혜인, 노순애, 박근발, 박성지, 박성호, 박순자, 박정재, 박제형, 서영희, 손경표, 송소심, 송현자, 서경숙, 서순애, 선영민, 신문자, 신호숙, 오경인, 오정현, 이경순, 이구현, 이복덕, 이태민, 이혜숙, 임정희, 장선화, 정상심, 정송희, 정은희, 정정란, 정지영, 조소영, 조익순, 주선순, 주은아, 주은주, 차영하, 황인용, 황현숙, 허경자

단체 및 기업후원

드림치과, 저전동성당(대건회, 빈첸시오회),
송도종합건설(주), JA건설

물품 후원

김영순, 배옥란, 박선심, 서혜정, 임정희, 장삼순, 정혜경, 한덕순

호스피스 완화의료 팀원들은 도움을 주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 중에 기억하며
매월 둘째 목요일에 감사미사를 봉헌 합니다.

후원회 안내

호스피스완화의료 후원에 함께 하실 분들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립니다.

은행계좌: 700-107-426533 광주은행

예금주: (재)천주교가리따스수녀회(완화의료)